

제13권 17호

2023. 8. 14~2023. 8. 27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시중은행의 생존전략이 될 잘파세대 |
| 이슈분석 | 전기차 시대의 주유소, 변해야 살아남는다 |
| 금융경영브리프 | 임베디드 금융의 시대, 은행 경쟁력 차별화 중요
Global Boiling의 시대, 보험사의 보장공백과 대응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장기채 공급 우려로 美 장단기금리 역전 축소
외 환 : 달러화의 영향력 재확인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김종현(jh.kim_)

논단

연구위원 윤선영(sunyy)

이슈분석

연구위원 안혜영(mith5)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위원 장예원(hwjang)
연구위원 진옥희(okheejin)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위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위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시중은행의 생존전략이 될 잘파세대
- 04 **이슈분석** 전기차 시대의 주유소, 변해야 살아남는다
- 08 **금융경영브리프** 임베디드 금융의 시대, 은행 경쟁력 차별화 중요
Global Boiling의 시대, 보험사의 보장공백과 대응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장기채 수급 우려로 美 장단기금리 역전 축소
외 환 : 달러화의 영향력 재확인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시중은행의 생존전략이 될 잘파세대*

윤선영 연구위원

금융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구매력과 트렌드를 주도하는 민첩함을 두루 갖춘 MZ세대(20대~40대 초)를 향한 관심은 여전하다. 그런데 ‘2023년 트렌드’로 알파세대(0~13세)가 언급된 후, 시장의 관심은 잘파(알파+Z세대)로 확장됐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경제적 자립 전에 주체적 금융의사결정력이 미흡한, 결국 당장 수익과 직결되지 않은 미래고객을 독립 주체로서 관리해야할지 조금 미뤄도 될지 고민일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을 따지기 전 잘파세대의 관리는 어쩌면 단기 미래를 대비하는 생존 전략일 수 있겠다.

:: 잘파세대의 등장과 그들의 수익성

Z세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칭하는데, 이들 중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 본격적 소득활동을 하기 전 Z세대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세대를 합쳐 잘파(ZALPHA)세대라고 통칭한다. 2010년 초반, 호주의 미래학자 마크 매크린들이 처음 사용한 알파세대는 2010년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태어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갖춘 밀레니얼 세대를 부모로 두고, 이들을 위해 얼마든 지갑을 열 수 있는 수많은 친척을 가진 골드키즈라는 점이 특징이다. 포브스는 알파세대 육아 및 IT서비스 산업 규모를 약 55조 원으로 추산하며 뉴맘이코노미(New Mom Economy)의 성장을 언급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19년~'22년 합계출산율이 15% 이상 감소했음에도 아동·육아용품 거래규모는 같은 시기 30% 가량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증여 또한 21년을 기점으로 약 1조 원 규모에서 2조 원 이상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직접 소득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파워가 강해진 자본주의 세대, 잘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금융사 입장에서 이들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일까? 알파세대(2010년~)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이고, Z세대 중 일부 24세까지 연령대를 넓혀도 그 규모는 20% 남짓이다. 주요 경제활동인구(25세~64세)가 약 60%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인구 규모로는 수익에 기여할 고객군이 잘파세대보다 경제활동인구라고 보여진다.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20대 미만 고객 수는 전체의 5% 내외이고 이들의 총수신잔액은 인당 평균 100만 원 가량으로

자본주의 세대,
잘파세대의 등장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잘파세대의 기여는
미미한 수준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추산돼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시니어 고객군 대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장 수익이 미미한 잘파세대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이미 거래 관계가 형성된 밀레니얼 부모 또는 그 윗세대에게 소구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잘파세대의 금융 거래를 보면 시급한 위기감이 감지된다.

∴ 잘파세대의 관리는 먼 미래의 대비가 아닌 당장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수익을 위한 잘파 유입이 아니라 해당 세대의 증발을 막기 위한 생존 전략

하나은행에서 올해 6월 잘파세대를 대상으로 수행한 서베이¹⁾ 결과를 보면, 대학생 10명 중 8~9명은 시중은행을 통해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은 5명 정도만 시중은행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유스앱을 통했다. 만 14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미니가 '20년에 출시돼 현재 중고등학생이 타것이없음을 감안할 때 디지털 플랫폼의 침투가 금융거래 패턴을 바꾸는데 얼마나 빠르게, 큰 역할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이다. 당연히 중고등학생이 인지하는 금융사 브랜드 Top 10위에는 시중은행보다 카카오, 토스 계열의 빅·핀테크 브랜드가 다수, 선순위에 포함돼 있어 같은 Z세대인 대학생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카카오뱅크미니 출시 3년째에 가입자 수(177만 명)는 해당 인구(만 14~18세)의 80%에 육박하고 카카오 가입은 만 14세 생일을 기념하는 상징적 행사가 됐다는 카카오측 설명을 홍보성 발언이라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처음 청소년을 위한 특화 금융을 경험한 중고생의 거래 변화가 너무 빨라 시중은행은 그들이 거래할 금융기관 후보군(Consideration Set) 중 하나조차 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이 전해온다.

금융정책 변화 또한 잘파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0대 이하에 뒤늦게 접근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잘파세대 확보가 향후 더 치열해질 시장경쟁을 준비하는 필수 조치일 수 있다. 또한 얼마 전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지점 방문 조건이 사라진 이상 부모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및 증권사를 자녀 거래 대상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는 결국 향후 자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중은행의 잘파세대 관리는 제도 변화로 인해 더욱 촉발된 셈이다.

[1] '잘파세대의 금융'보고서는 '23년 8월 말 이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 잘파세대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므로 성장에 따른 맞춤 관리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

미성년자인 초중고생을 세분화하면 앞선 설명처럼 시중은행에서 멀어지는 중고생과 아직 시중은행을 선호하는 초등생으로 구분된다. 초등생 4명 중 3명은 시중은행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고, 핀빅테크 브랜드보다 시중은행을 먼저 상기했으며, 자산 형성 후엔 시중은행과의 거래를 계획했다. 초등생은 금융의사결정 시 부모의 영향력이 크고, 부모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거래해도 자녀 거래는 시중은행을 택하므로 알파에게는 아직 시중은행이 우선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알파 역시 향후 이용하고 싶은 유스앱은 카카오톡이었다. 카카오톡 가입 대상은 올해 3분기부터 만 7세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이 알파세대를 선점·유지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시중은행은 여건에 따라 잘파세대 중 각기 다른 대상(초·중고대)에 특화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해당 플랫폼들은 아직 금융거래가 제한적인 이들에게 일상·소비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잘파세대를 위한 플랫폼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게임, 첨단기술, 소셜 등의 모음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는 금융(은행)의 핵심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잘파세대가 은행에 기대하는 핵심 가치는 돈을 모으고(초등), 편리하게 쓰는(중고등) 데 있다. 은행은 단편적인 관심 유발보다 이들의 핵심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가이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벤트, 게임 등의 활용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Bluestone Bank는 마일스톤 계좌를 통해 0~23세 잘파세대의 성장에 맞춰 서비스·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아직 국내 유스앱 중 잘파세대 성장을 고려한 앱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 자산 규모가 관리의 절대적 기준이겠지만 잘파세대는 성장에 따라 거래 조건, 인식이 크게 바뀐다. 당장 선호하는 플랫폼의 컨셉만 보아도 초등생은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고등생은 자동으로 돈이 분배돼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앱을 선호해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잘파세대는 동일 집단이 아니므로 시기별 관리 포인트를 변경하며 맞춤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잘파세대에게 진정한 금융의 가치를 가이드하고 성장에 따른 맞춤 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이들의 긴 금융여정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잘파 중에서도 특히 알파에 집중해야 할 상황

잘파의 플랫폼은 선호 콘텐츠 모음이 아니라 은행에 기대하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가이드 해야 할 것

성장에 따라 거래 조건 및 기대가 달라지므로 장기적 관점의 맞춤 관리를 계획할 필요

전기차 시대의 주유소, 변해야 살아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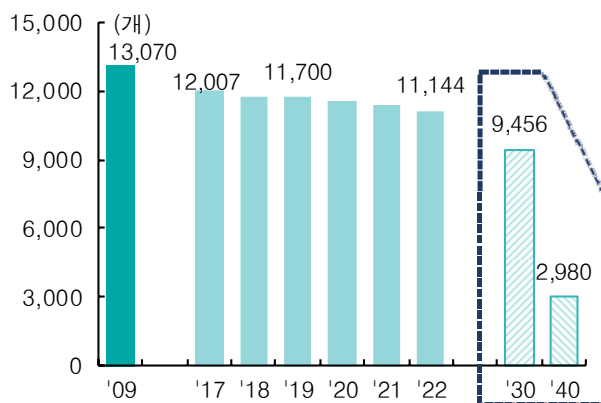
안 예 영 연구위원

국내 주유소는 경쟁심화, 친환경차 전환으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는 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그린에너지를 통한 매출 다각화를 추진 중이며, 입지 경쟁력을 갖춘 주유소들은 상업용 복합시설 및 도심 물류거점을 구축하여 비연료 부문 수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주유소의 변화로 다양한 기회가 발생할 전망이나 규제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모니터링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국내 주유소는 수익성 악화로 2009년 1.3만개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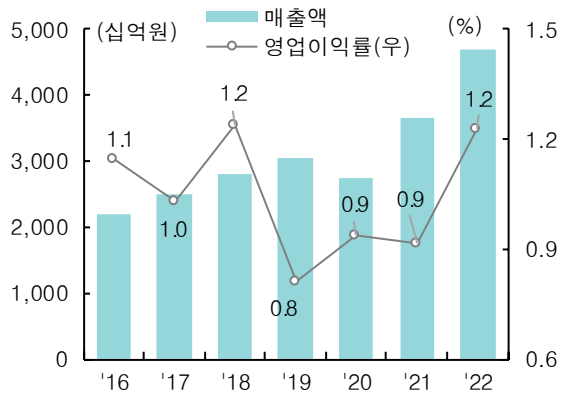
- 국내 주유소는 '70~'80년대 자동차 및 석유산업 육성정책으로 고성장을 했으나 2000년 전후 정부의 경쟁촉진을 위한 주유소 진입규제 완화로 사업자 규모 확대
 - 대형마트 진출('08), 농협 브랜드 주유소 도입('09), 알뜰주유소 도입('11) 허용
- 수요 대비 주유소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가격 경쟁이 과열된 데다 인건비, 임대료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유소 수는 '09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
 - 현재 국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1% 내외로 파악
- 또한 세계 각국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가운데, 한국 역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주유소 수는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전망
 - '22년 국내 판매 전기차는 전년비 64% 증가한 16.4만대로 전체 판매의 9.8%를 차지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2040년 국내 주유소 수는 현재의 1/4수준인 3,000개만 남을 것으로 전망

■ 주유소 수 추이 및 전망



자료 : 한국 석유관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차량용 주유소 운영 실적



자료 : Kis-Value

■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들은 본업은 유지하되 주유소의 가치를 활용한 신사업 확대 중

- 현재 주유소는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고,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자동차 연료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 이상 내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내연차가 존재하는 한 주유소는 필요한 상황이므로 주유소들은 본업은 유지하되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속도를 내기 시작
 - '22년 한국 자동차 등록대수 중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비중은 1.9%에 불과
- 최근 주유소 신규 사업은 동종, 이종 업종과 결합하여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구축, 비 연료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

■ 주유소를 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그린에너지를 통한 매출 다각화 추진

- 최근 정유사들은 기존의 주유소의 형태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수소/전기차 충전기 등이 결합된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구축을 추진
 -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은 주유소 내 설치한 연료전지, 태양광발전에서 친환경 차량 충전에 필요한 전기, 수소를 자체 공급할 수 있어 분산전원의 핵심시설로 활용
 -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해 관련 종사자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경제적
- 향후 예상되는 주유 부문의 수익 감소는 전기차 충전 및 유희 전기 판매로 보완하는 한편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에 입점한 부대시설을 통해 추가 수익 창출
 - 친환경 발전을 통해 탄소 중립에 대응하며, 전기 생산을 통해 전기차,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부족을 해소하고 송배전 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절감
- SK에너지가 '22년 5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실증 사업을 수행 중이며 정유사들은 규제 개선 속도에 맞춰 사업 확장 준비 중

■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조감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추진과 관련된 주요 법안

	기존 법안	개정 법안
위험 안전 관리법	주유소 내 이격 거리 제한 : 주유설비와 EV 충전기는 6m 이상 간격 유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거리 기준 완화(6.28)
	주유소 내 주유기 외 여타 건물 및 시설 건축 규제	주유소 내 수소 연료 전지 설치 허용(6.9)
전기 사업법	신재생 사업자 외 자가 발전 생산 전기의 직접 이용 및 판매 불가	규제 개선 추진 중
전기 안전 관리법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은 20kW 이상 전기 설비 보유 시 안전 관리자 선임	원격·감시·제어 기능 갖춘 경우 300kW 미만 대행(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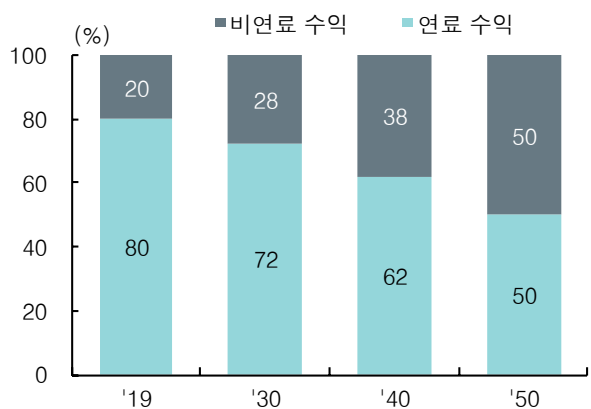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정부와 관련 부처들도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의 시장 정착을 위해 그동안 주유소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사업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
 -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6.9),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기준 완화(6.28)

■ 주유소의 유리한 입지를 활용하여 비연료 부문의 새로운 수익모델 추가

- 최근 주유소들은 전기차 전환에 대응하여 EV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나 점차 주유소 매출 중 연료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비연료 부문의 매출은 확대될 전망
 - 내연차는 주유소에서만 주유가 가능하나 전기차는 거주지, 마트, 빌딩 주차장 등 다양한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여 기존 주유 차량 수요를 모두 흡수하는데 한계
- Mckinsey는 주유소 비연료 수익 비중이 '19년 20%에서 '30년 2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추세 지속 시 '50년에는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 특히 도심 주유소들은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며, 대로에 접해 있어 차량 출입이 용이하여 상업용 복합시설 및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
- 실제 주유소들은 유휴 공간에 EV충전 시간 동안 운전자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 편의점/할인점, 세차 및 정비 시설, 다양한 테마 공간을 도입 중
 - 현대오일뱅크는 한남동 직영 주유소에 벅슨, 피치스와 제휴하여 기존 주유 공간에 게임 조형물, 그래피티 아트, 팝업 스토어가 어우러진 게임 테마 주유소 조성
- 또한 주유소들은 그동안 유휴 공간에 화물 픽업 센터를 운영하며 물류거점의 가능성을 확인해 왔고, 최근 들어 도심형 물류거점을 고도화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시도 추진 중
 - GS칼텍스는 서울시와 서초구 내곡 주유소를 스마트 MFC, 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 결합한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 주유소'로 조성하는 실증사업을 진행 중

■ 주유소(연료 소매업)의 수익 비중 전망



자료 : Mckinsey,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 주유소' 조감도



자료 : GS칼텍스

■ 부동산 투자사들도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변화를 추진 중

- 주유소 부지를 임대 수익원으로 활용해 왔던 부동산 투자사들은 최근 주유소의 연료 판매 역할 축소에 대비해 해당 주유소 부지의 밸류에드에 적극 나섬
 - 현재 국내에서는 코람코에너지리츠와 SK리츠가 주유소 부지를 자산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을 개발 운영 중이며 각각 '20년, '21년 KOSPI에 상장
- 코람코에너지리츠는 에너지의 색채를 털어내고 주유소 부지를 통한 수익모델을 식음료, 도심물류에 이어 공유 주거 등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다각화할 계획
 - 코람코에너지리츠 보유자산은 수도권 주유소 160곳, 대형 가전매장 4곳, 물류센터 2곳, F&B 매장으로 다각화되었고 충전소, 공유 주거 등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
- 반면 SK리츠는 보유한 주유소 부지에 기반한 '복합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고 모기업의 에너지 사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 주유소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금융 기회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규제 불확실성이 크고,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중한 접근 요구

- 주유소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자금 수요, 동종이종 기업 간 제휴 및 M&A 등 다양한 기회에 주목할 필요
-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등이 완전한 수익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실증 단계 이후 사업성 검증 필요
 -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전기차 충전에 직접 이용할 수 없어 당초 복합에너지 스테이션에서 기대한 경제적 효과 저감
- 또한 주유소들이 복합 상업 시설, 물류 등 비연료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나 주유소 폐업 가속화로 지점수가 줄어들 경우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 후 전략적으로 참여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코람코에너지 리츠의 투자 구조



자료 : 코람코 에너지 리츠

■ 국내 주유소 자산 기반 리츠 비교

구분	코람코에너지 리츠	SK리츠
밸류에드 방향	- 생활 밀착형 리츠	- 주유소 가치 상승 - 그린에너지 공급
KOSPI 상장	- '20.8.31	- '21.9.14
보유 자산	- 전국 주유소 160여 곳 - 대형 가전매장 4곳 - 물류센터 2곳 - 다수의 F&B 매장 - 충전소 2곳 개발 중	- 클린에너지리츠를 통해 인수한 SK직영 주유소 116곳
기타	- 최근 코-리빙하우스 개발 진행 중	- 최근 복합에너지 스테이션 전환 착수

자료 : 각 사 자료

임베디드 금융의 시대, 은행 경쟁력 차별화 중요

장혜원 수석연구원

신기술의 발전으로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은행은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비전통적인 플레이어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도 강화해왔다. BaaS(Banking as a Service), Embedded Finance 등이 대표적으로, 이를 통해 은행은 고객접점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금융사와의 협력은 금융사의 코어 기능을 외부에 이전(공유)하는 것으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시장 잠식의 문제가 있어 은행 본연의 경쟁력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금융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은행은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비전통적인 플레이어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BaaS, 임베디드 금융 등 협력도 강화
 - BaaS(서비스형 बैं킹)는 은행이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회사(비금융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은 사업회사가 자사 플랫폼에 금융기능을 내재화 하여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특히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빅(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세대 금융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임베디드 금융이 부각^[1]
 - 최근 임베디드 금융 서비스 가운데 Multipl, OmniCard 등 인도의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SNBL(Save Now, Buy Later)모델이 주목
 - SNBL은 여행을 위한 항공권, 기념일을 위한 선물 등 지출 목적과 기간을 설정하면 매주 적립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주고, 목표 달성 시 할인, 리워드 등을 제공
 - SNBL은 소비자의 즉각적인 만족보다 계획적 소비에 도움을 줌으로써 과소비, 신용손실 및 추심 위험 논란이 제기되는 BNPL(Buy Now, Pay Later)의 단점을 보완
 - 美 핀테크 회사 MoneyLion은 온라인마켓플랫폼 Even Financial을 인수하여 새로운 임베디드 금융 플랫폼 Engine By MoneyLion을 런칭^[2]
 - “궁극의(holistic) 플랫폼”을 지향하는 Engine by MoneyLion은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을 넘어 금융소비습관 개선, 기업에 임베디드 금융기능 추가 등을 지원


[1] “Embedded finance, bank-fintech partnerships drive agenda at Money 20/20 Europe”,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3.7.19

[2] “MoneyLion’s Engine brings holistic embedded finance”, FintechNexus, 202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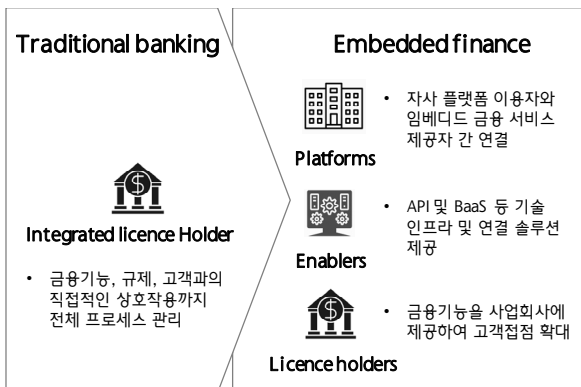
■ 임베디드 금융은 은행과 사업회사, 소비자 모두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상생모델

- 은행은 임베디드 금융을 통해 지급결제, 대출, 자산 및 투자관리 등 주요기능 자체를 사업화하여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고객접점 채널도 확대
- 사업회사는 금융기능 중개를 넘어 방대한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편의도 개선

■ 그러나 동시에 은행의 코어 금융기능 이전(공유)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시장 잠식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은행 경쟁력 차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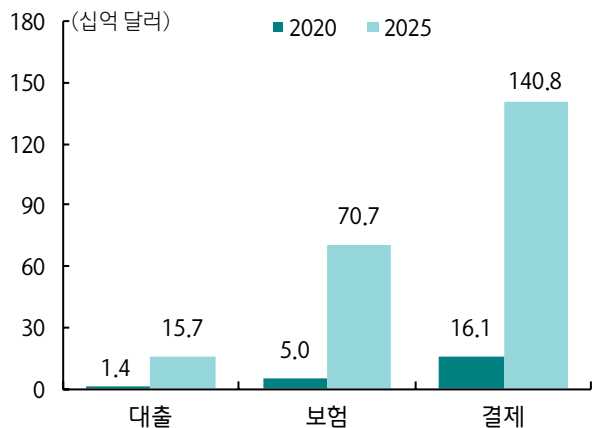
- 임베디드 대출, BNPL 등 임베디드 금융의 급속한 성장으로 은행이 거의 독점했던 대출시장에 다양한 공급자가 참여하면서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감소 우려³⁾
- 또한 은행과 고객 관계가 B2C에서 B2B2B, B2B2C 등으로 다층화되며 이해관계와 지역·산업별 규제 복잡성으로 문제발생 시 원인규명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⁴⁾
 - 최근 한 사업가는 임베디드 금융을 통해 독립로 송금한 금액이 수탁은행인 에스토니아 은행으로 돌아왔으나, 원인도 모른 채 해당 문제 해결에 두 달 소요
 - 금융서비스 Value Chain에 참여하는 사업회사(중개 및 서비스개발)의 종류가 많고 사용하는 통화가 다양할수록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고객대응에 한계
- 다만, 리스크 및 시장 잠식 문제에도 불구하고 임베디드 금융의 잠재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융기능 제공을 넘어 본연의 경쟁력 차별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
 - 고객 직접 혹은 간접대면 채널별 각각의 브랜드 전략, 단순 라이선스(금융기능) 제공을 넘어 은행 강점(보안, 신뢰 등)이 특화된 banking 솔루션 제공 등 

■ 전통적인 은행과 임베디드 금융



자료 : PWC(2023)

■ 임베디드 금융 시장규모 전망



자료 : Lightyear Capital(2021)

[3] "Banks and embedded finance opportunities, risks and success factors", Bancos, 2023.8.2

[4] "The hidden risks of BaaS and Embedded finance: Inside Apple's Struggle", Forbes, 2023.6.14

Global Boiling의 시대, 보험사의 보장공백과 대응

진 옥 희 연구원

이상기후 현상 속에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심화되었다. 이에 글로벌 보험사는 기후 위험 평가 모형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보험손실 급증으로 재해 관련 위험 인수를 중단하거나 사업을 매각하는 보험사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보험사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폭염·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재해 관련 손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부도 정책보험 등을 활용하여 보장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이상기후 현상 속에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심화되며 보험손실도 급증^[1]

- 2022년 자연재해 발생 건수(421건)가 20년 평균(396건)을 상회하고, 보험손실은 1,32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빈도·심도가 증가하며 기상이변에 대한 심각성 대두
 - 특히, 22년 美 보험사의 재해 관련 손실은 990억 달러를 기록(글로벌 손실의 75%)
- 2023년 슈퍼 엘리노가 예견된 가운데,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어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 점증
 - UN은 글로벌 온난화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지구가 끓는(boiling) 시대가 되었다고 평가

■ 이에 보험사는 기후 위험 측정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

- 기후 위험도 평가 모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보험사는 인슈어 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모형을 고도화하는 한편, 보험료율 설정 등에 활용
 - '23.5월 Moody's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보험사 86%는 기후 위험 평가를 위한 모형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2]
 - Zesty.AI는 Aon과 Berkshire Hathaway에게 기후변화와 산불 간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AI 기반의 위험 모형 Z-FIRE을 제공하여 보험사의 효율설정, 위험인수를 지원
- 위험관리 외에도 고객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
 - '23.7월 프랑스 AXA는 Kayros와 개발한 모형을 토대로 고객에게 위성 이미지 기반의 산불 위험 지도와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포괄한 산불 위험 방지 서비스를 제공^[3]

[1] Aon, "2023 Weather, climate and catastrophe insight", 2023.1.24


[2] Moody's, "Climate counts—the status of climate adoption into insurance risk management and reporting", 2023.5

[3] AXA, "AXA unveils wildfire risk prevention service in France", 2023.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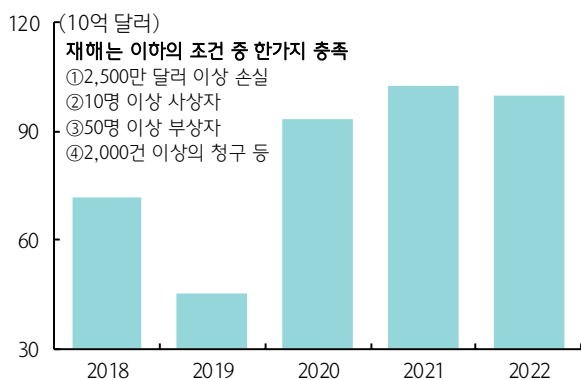
■ 반면, 위험인수 중단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도 보장공백을 완화하고자 노력

- 美 캘리포니아주 손해보험사는 재난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위험인수를 중단
 - '22년 AIG가 산불에 의한 보험손실 증가로 주택보험의 신계약 체결을 중단한 데 이어, '23.5월 State Farm, 6월 Allstate도 주택보험 신규 위험인수 중단을 선언^[4]
 - 이미 고물가 여파로 건설비용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재해 및 손실 예측 실패, 정부의 보험료율 통제에 의한 수익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 한편, 23.5월 AIG는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회사 Validus Re를 포함하여 재보험 사업부문(AlphaCat, Talbot, Western World)을 Renaissance Re에 30억 달러에 매각
- 민간 보험사의 보장공백을 완화하고자 캘리포니아는 FAIR Plan 보장한도를 상향 (23.3월)한 가운데 8월부터 보험계약자의 위험예방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5]
 - FAIR plan이란,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부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주정부가 관리하는 보험풀을 의미

■ 우리나라도 최근 폭염·폭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민간 보험사와 정부 모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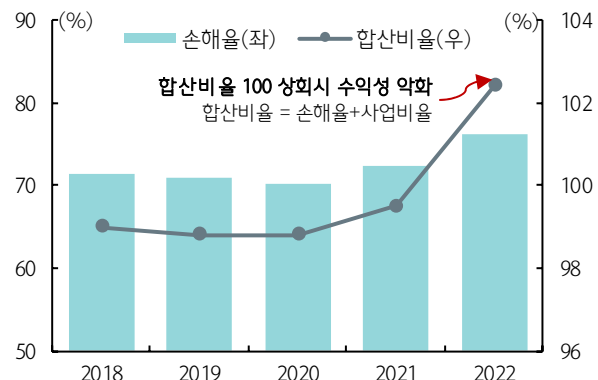
- 국내 보험사들도 자연재해 위험도 평가 및 예상손실 모형을 개발 및 활용 중
 - 기상청의 빅데이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침수 흔적 공공데이터 등을 토대로 보험인수와 위험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보험계약과 고객 컨설팅에 활용^[6]
- 아울러 정부에서도 정책 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추후 민간 보험사의 재해 관련 손실이 급증하여 보장공백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할 필요
 - 나아가 보험료 설정 시 계약자의 방재 노력을 반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풍수해 보험의 지속가능성(재정부담 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美 재해에 의한 보험손실 추이



자료 : III(<https://www.iii.org>)

■ 美 손해보험사(P&C)의 손해율 추이



주 : APCA(2023.4)

[4] The New York Times, "Allstate is no longer offering new policies in California", 2023.6.4

[5]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Being safer from wildfires can help with your insurance", 2023.7.26

[6] 이승준,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현황과 과제", 2023.6.8

금리: 장기채 수급 우려로 美 장단기금리 역전 축소

윤 석 진 연구원

일본은행의 YCC정책 변경 및 美 재정적자에 따른 미국채 수급 우려로 주요국 장기금리는 상승했다. 국내 금리 또한 韓 물가 둔화세 지속 및 中 무역지표 부진에도 대외發 금리 상승압력에 연동되며 상승했다. 미국 7월 CPI는 기저효과 약화로 13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연준의 9월 추가 인상 우려를 완화했다. 8월 금통위는 동결 예상되나, 美 재무부의 국채 발행계획 확대에 의한 대외發 장기채 수급 관련 경계심이 이어지며 국내금리의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 美 재정우려 및 BoJ 정책 변경 등에 따른 미국채 수급부담으로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재정건전성 및 거버넌스 악화(부채한도 협상 관련 정치권 갈등 반복) 등에 대한 우려로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AAA → AA+)
 - 美 재정적자와 재무부 국채발행 확대계획 발표가 맞물려 장기채 수급부담 부각
- 일본은행의 YCC정책 유연화 조치 발표 또한 주요국 금리 상승압력을 확대
 - BoJ, 10년물 금리 목표 범위를 ± 0.5%로 유지하되 지정 매입 금리를 1.0%로 상향
- 이후 美 7월 비농업 고용지표 둔화 및 물가상승률 예상치 하회, 무디스의 미국 중소형은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이 장기금리 상승폭 축소 요인으로 작용
 - 신용평가사 무디스, 미 중소형은행 10개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또한 경고하면서 美 은행권 관련 불안이 재조명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7.27일 4.93/4.00 → 8.3일 4.89/4.18 → 10일 4.84/4.11


■ 국내금리는 물가 둔화세 지속 및 中 무역 부진에도 대외금리 상방압력에 따라 상승

- 韓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둔화 등에 힘입어 2.3% (yoy)를 기록, 근원 물가 또한 하방경직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둔화 흐름 지속
 - 韓 CPI/근원CPI(%, YoY) : 4월 3.7/4.0 → 5월 3.3/3.9 → 6월 2.7/3.5 → 7월 2.3/3.3
- 국내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7월 수출입 통계가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하고 中 부동산 개발기업 벽계원의 이자 지급 불능 등이 전해지며 경기 우려 확대
 - 中 수출/수입 (%, YoY) : 6월 -12.4/-6.8 → 7월 -14.5/-12.4 (예상 -12.5/-5.0)
- 韓 물가 둔화 경기 우려에도 국내금리는 높은 대외금리 민감도를 보이며 동반 상승
 - 국고 3/10년 금리(%) : 7.28일 3.64/3.73 → 8.4일 3.74/3.88 → 11일 오전 3.70/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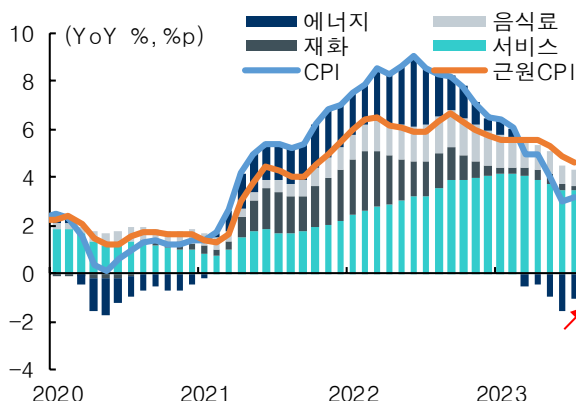
■ 미국 7월 CPI, 기저효과 약화로 13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시장 우려에 비해 긍정적

- 美 7월 CPI는 에너지 가격의 기저효과 약화와 비주거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13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반등했으나,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
 - 美 CPI·근원CPI(% , YoY) : 5월 4.0/5.3 → 6월 3.0/4.8 → 7월 3.2/4.7 (예상 3.3/4.7)
- 헤드라인 물가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주시하고 있는 근원물가지수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이어갔으며,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
- 금융시장에서는 7월 CPI·근원CPI가 전반적으로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임에 따라 美 연준의 9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
 - 9월 FOMC 금리 인상/동결 전망(CME Fedwatch) : 9월 14%/86% → 10월 10%/90%
- 주거비 둔화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 시 향후 美 물가 경로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글로벌 식량 공급 불안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에 의해 물가 둔화 속도가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향후 18개월 내 주거 물가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언급

■ 美 재무부 국채발행 확대로 인한 장기채 수급 경계심 이어지며 국내 금리 하락을 제한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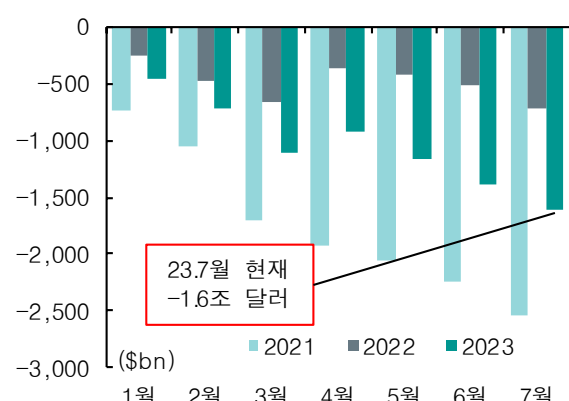
- 美 연준의 동결 가능성 커지며 단기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인 반면, 재무부 국채발행 확대(5~7월 \$7,430억 → 8~10월 \$8,210억)로 장기채 수급 우려는 당분간 지속
- 이로 인해 단기물 구간에 비해 중장기 금리의 상방 위험이 상대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미국채의 수익률 곡선은 스티프닝(美 장단기금리 역전 폭 축소) 우세할 전망
- 내외금리차 확대에도 급격한 외인 자본 유출 및 환율 불안 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8월 금통위는 동결 전망되나, 대외발 장기금리 경계심이 국내금리 하락을 제한할 소지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60%~3.80%, 3.70~3.90% 범위로 전망 

■ 미국 CPI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 Bloomberg

■ 연도별 미국 재정적자 추이 (YTD 금액)



자료 : 미 재무부, Bloomberg

외환: 달러화의 영향력 재확인

오 현 희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美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속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1,30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하였다. 특히, 위험회피 심리로 국내 증시가 조정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의 순유출되고 중국발 리스크도 높아짐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확대하였다. 당분간 국내수급 불안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는 위안화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원/달러 환율] 달러화 강세와 수급악화 등 대내외 요인들이 맞물리며 1,300원 상향돌파

- 원/달러 환율은 美 신용등급 강등 이슈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된 가운데 美 경제지표로 호조(민간고용 등)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300원 돌파
 - 다만, 미국의 7월 美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18.7만명) 예상치(20만명) 하회해 따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300원을 하회(8.8일)
- 아울러, 中 지표 부진에 따른 위안화 약세 속 7월 국내 수출 위축과 증시 조정에 따른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8.1~10일 0.7조 순유출) 등으로 원화 약세 심화
 - 7월 무역수지(+16.3억\$)가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입 감소폭 확대(YoY, -25.4%)에 의한 것으로 수출 부진(YoY, -16.5%)이 지속되고 있어 원화에 부담

■ [국제 환율] 안전자산 선호 속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달러화 반등

- 달러화는 8.1일 Fitch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美 정부의 채권발행 확대 계획과 견조한 경제지표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강세 흐름
 - 美 고용시장 둔화 조짐이 나타나자 반락하기도 하였으나, 무디스의 美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으로 위험회피가 나타나면서 강세 전환
- 유로화는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위축 등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부과 조치 등으로 약세
- 엔화는 美 신용등급 강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며 강세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日 국채금리 상승에도 미·일 금리차 확대되며 약세흐름
- 위안화는 당국의 통화 방어에도 경기지표 부진 속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 가든의 이자상환 불이행으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달러당 7.2위안 상회

■ 상반기 중 상품 및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본원소득 흑자 확대로 외화수급 불안 완화

- 상반기 중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보였음에도 배당수익을 중심으로 본원소득 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4.4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배당소득 등 본원소득 흑자 확대는 올해부터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시행(익불금산입)되면서 기업의 해외유보금 유입이 증가한데 기인
 - 법인세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의 95%까지 비과세 적용을 시행하면서 상반기 해외 자회사의 국내 송금액은 290억 달러로 전년동기(46.2억 달러)의 6배 수준을 기록
- 제도 개편으로 기업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본원소득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상수지 및 외화유입 증가 측면에서 중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환율결정모형 분석 결과 경상수지 흑자 10억\$ 증가시 원/달러 환율은 0.11% 하락¹¹

■ 달러화 강세 속 중국발 리스크 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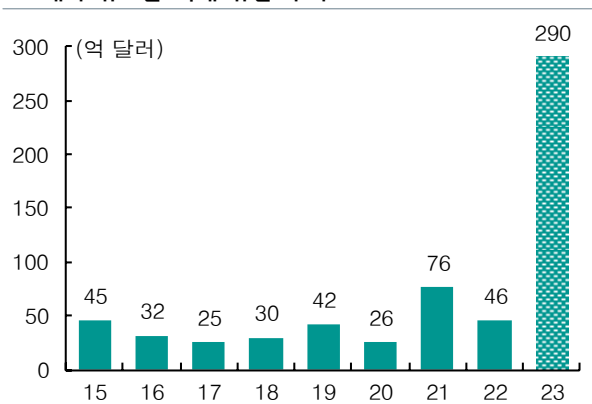
-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美 재무부 국채발행 확대와 맞물린 금리상승으로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
 - 7월 미국의 CPI 둔화에도 국제유가 상승 속 국채 수급불안에 따른 입찰부진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
- 위안화의 경우 미국의 中 첨단기술 투자 제한과 부동산 리스크 등 하방요인과 中 정부의 부양기대에 따른 상방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원화 변동성 확대 요인
- 다만, 美 7월 CPI 둔화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재개될 가능성 등이 하단을 지지하며 원/달러환율은 1,280~1,330원에서 등락 예상¹²

■ 상반기 경상수지 항목별 추이(억 달러)

	2021	2022	2023
경상수지	407.7	248.7	24.4
상품수지	378.1	213.9	-34.7
서비스수지	-39.7	-9.3	-119.3
운송수지	42.4	85.6	-4.1
여행수지	-34.8	-32.5	-58.3
본원소득수지	98.6	58.4	194.9
배당수지	43.8	13.2	159.0
이전소득수지	-0.5	0.3	0.4

자료: 한국은행

■ 해외 유보금 국내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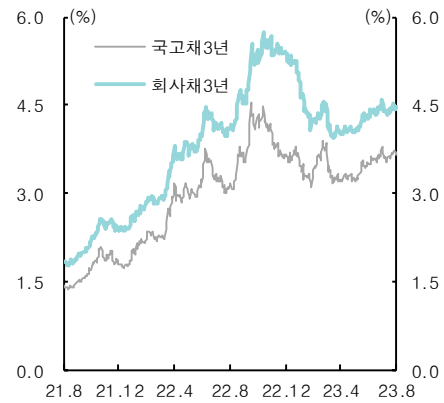
주: 직접투자 일반배당수입 기준, 연도별 1~6월 합계
자료: 한국은행

¹¹ 분석모형 $\Delta \ln E_t = \alpha + \beta_1 \ln M_t + \beta_2 \ln P_t + \beta_3 \ln CA_{t-1} + \beta_4 S_t + \beta_5 \ln B_t + \beta_6 \ln I_t + e_t$
(E:원/달러환율, P:산업생산(GDP 대응변수) M:통화량, CA:경상수지, S:외국인 주식투자, B:외국인 채권투자, I :한-미금리차)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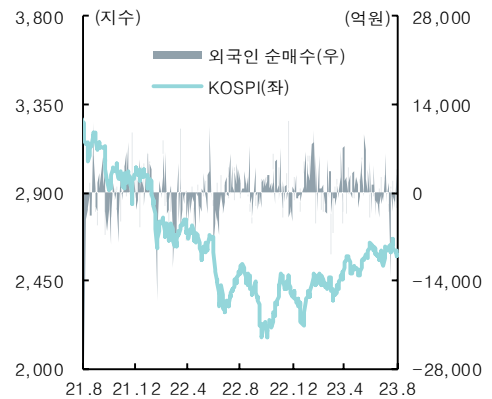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7월말	3.49	3.74	3.81	4.47	3.68	3.70
8월 4일	3.50	3.72	3.82	4.52	3.74	3.78
8월 7일	3.54	3.72	3.79	4.47	3.69	3.71
8월 8일	3.49	3.70	3.78	4.42	3.65	3.66
8월 9일	3.49	3.70	3.79	4.45	3.67	3.69
8월 10일	3.59	3.68	3.80	4.46	3.69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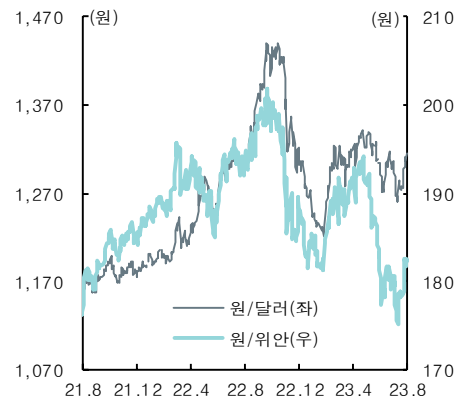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7월말	2,632.6	156,880	454	-2,923
8월 4일	2,602.8	109,714	646	-2,453
8월 7일	2,580.7	118,945	504	2,811
8월 8일	2,574.0	124,354	638	-1,419
8월 9일	2,605.1	103,263	468	3,657
8월 10일	2,601.6	113,490	568	-2,331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7월말	1,274.6	895.8	178.4	1,401.5
8월 4일	1,309.8	924.1	182.6	1,442.1
8월 7일	1,306.2	916.5	181.6	1,437.1
8월 8일	1,315.7	917.5	182.3	1,441.4
8월 9일	1,315.7	915.3	182.5	1,443.6
8월 10일	1,316.0	908.9	182.3	1,4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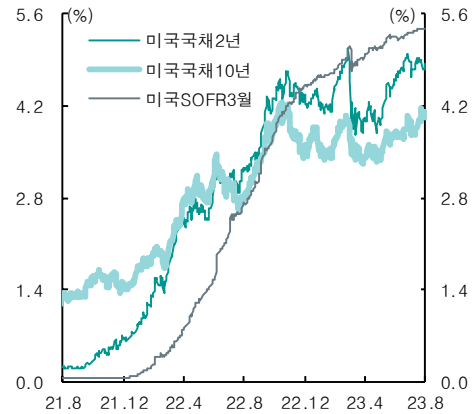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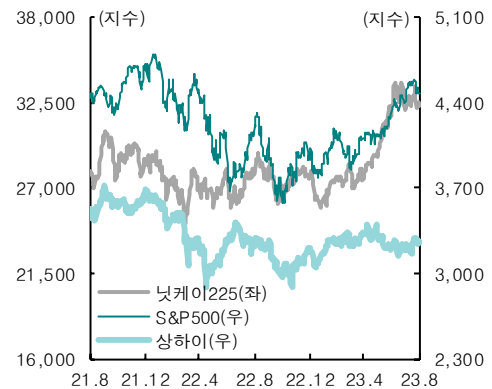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7월말	5.33	5.37	4.88	3.96	0.61	2.49
8월 4일	5.33	5.37	4.76	4.03	0.65	2.56
8월 7일	5.33	5.37	4.76	4.09	0.63	2.60
8월 8일	5.33	5.37	4.75	4.02	0.61	2.47
8월 9일	5.33	5.37	4.81	4.01	0.58	2.50
8월 10일	-	5.37	4.84	4.11	0.58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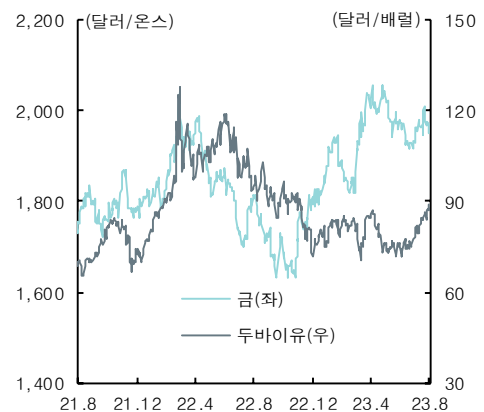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7월말	4,589.0	33,172.2	3,291.0	4,471.3
8월 4일	4,478.0	32,192.8	3,288.1	4,332.9
8월 7일	4,518.4	32,254.6	3,268.8	4,337.5
8월 8일	4,499.4	32,377.3	3,260.6	4,288.9
8월 9일	4,467.7	32,204.3	3,244.5	4,317.3
8월 10일	4,468.8	32,473.7	3,254.6	4,384.0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7월말	142.25	1.100	85.6	2,009.2
8월 4일	141.72	1.101	87.1	1,976.1
8월 7일	142.48	1.100	87.7	1,970.0
8월 8일	143.32	1.096	87.1	1,959.9
8월 9일	143.70	1.097	-	1,950.6
8월 10일	144.71	1.098	89.0	1,948.9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17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8월 11일 인쇄

2023년 8월 14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17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